

**#아름다운 색감 #독특한 화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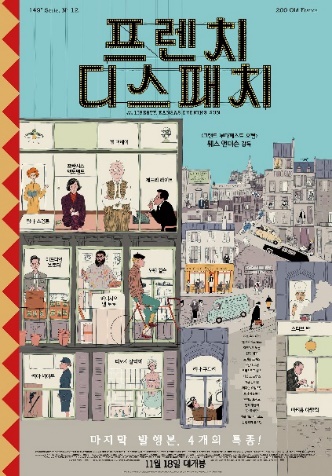
**유니크한 연출 기법으로 완성되는**

**웨스 앤더슨의 황홀한 세계가 펼쳐진다!**

독보적인 연출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감독 웨스 앤더슨이 마스터피스 <프렌치 디스패치>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수입/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 감독: 웨스 앤더슨 | 출연: 틸다 스윈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빌 머레이, 애드리언 브로디, 오웬 윌슨, 레아 세이두, 티모시 샬라메 외 | 개봉: 2021년 11월 18일]

**유니크한 연출 기법에 자신만의 색채를 칠하는 천재 감독 웨스 앤더슨!**

**<프렌치 디스패치>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 예고!**

****

좌측부터 <프렌치 디스패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킹덤>

[출처: 네이버 영화]

매 작품마다 특색 있는 연출로 관객들을 자신만의 세계로 인도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로 돌아왔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 기법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갑작스럽게 마지막 발행본을 준비하게 된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취재한 4개의 특종을 담은 작품.**

**# 팔레트를 옮겨 놓은 듯한 아름다운 색감!**

**흑백 시퀀스와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더하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팔레트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완성된 미장센으로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라 불린다. 따뜻한 색감들로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그의 작품은 마치 동화 속 세계를 연상시키는 듯하다. 이렇듯 색감 장인 웨스 앤더슨 감독은 <프렌치 디스패치> 영화 속 배경인 20세기 프랑스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파스텔 톤의 블루와 옐로우 계열은 물론 이를 더욱 강조하는 흑백 시퀀스를 선택하는 과감한 연출까지 더했다.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마지막 발행본을 위해 4가지 특종을 취재하는 매기진 이야기를 다루는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예고해 마치 하나의 프레임마다 잡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아이텐티티!**

**완벽한 좌우대칭 화면 구성부터 연극 형식의 독특한 카메라 워킹까지!**

****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는 화면 구도와 연극 형식의 카메라 워킹은 웨스 앤더슨만의 독특한 세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연출 기법이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가장 큰 특징으로도 꼽히는 좌우대칭 프레임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히 계산된 의도로 구성되었으며,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연극 형식의 카메라 워킹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신선한 느낌을 주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이번 작품을 찍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정말 그렇게 찍는다”**라고 전한 웨스 앤더슨은 그 어떤 전작보다 더욱 다채롭고 볼거리가 가득한 수작을 탄생시켰음을 예고했다.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를 통해 컬러와 흑백 시퀀스의 전환, 애니메이션 삽입 등 더욱 과감한 연출을 시도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이제껏 보지 못한 독보적인 비주얼을 기대케 한다. 마지막 발행을 앞둔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를 빛낼 4가지 특종을 담은 <프렌치 디스패치>는 각양각색의 스토리를 웨스 앤더슨 표 비주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할리우드 거장 웨스 앤더슨 감독이 선사할 가장 아름다운 매거진에 관한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11월 18일(목) 개봉 예정이다.**

|  |
| --- |
| ★★★★★  **제74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전세계 언론의 쏟아지는 극찬!**  가장 ‘웨스 앤더슨’다운 영화!  - Entertainment Weekly -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 중 가장 시각적으로 주목할 만한다  - Screen Daily –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이 활짝 꽃을 피운 작품  - Deadline Hollywood Daily -  놀라운 비주얼 최고의 출연진!  - The Guardian -  <프렌치 디스패치> 세계에 있는 것은 기쁨이다  - Hyperallergic -  관객들이 입을 못 다물 것  - The Playlist -  웨스 앤더슨 스타일을 3배로 즐길 수 있는 영화  - Idobi.com –  웨스 앤더슨 영화의 하이라이트!  - Bullz-Eye.com -  올해 최고의 마스터피스!  - i-D –  숨막히게 아름다운 디자인  - South China Morning Post -  웨스 앤더슨 감독 최고의 걸작!  - Times (UK) -  화려하고 황홀한 비주얼이 가득한!  - Den Of Geek -  화려한 출연진들의 훌륭한 연기!  - Chicago Sun Times-    웨스 앤더슨 감독과 그의 앙상블이 들려주는 창의적인 이야기!  - Newsday -  북적이는 시장통 사이를 질주하는 쾌감  - The Telegraph -  앤더슨이 선사하는 매혹적인 칵테일  - The Times - |

**[Synopsis]**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 뉴스레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다!**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오래된 가상의 도시 블라제

다양한 사건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미국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편집장의 죽음으로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마지막 발행본에 실을 4개의 특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당신을 매료시킬**

**마지막 기사가 지금 공개된다!**

**영화 정보**

|  |
| --- |
| 제 목: <프렌치 디스패치>  원 제: THE FRENCH DISPATCH  감 독: 웨스 앤더슨  출 연: 틸다 스윈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빌 머레이, 제프리 라이트, 애드리언 브로디,  베니시오 델 토로, 오웬 윌슨, 레아 세이두, 티모시 샬라메, 리나 쿠드리,  스티브 박, 마티유 아말릭  수입/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북미 개봉: 2021년 10월 22일  국내 개봉: 2021년 11월 18일  관람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 타임: 107분 |

영화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스콘 (Tel.02-334-8855/E-mail. scon@scon-is.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